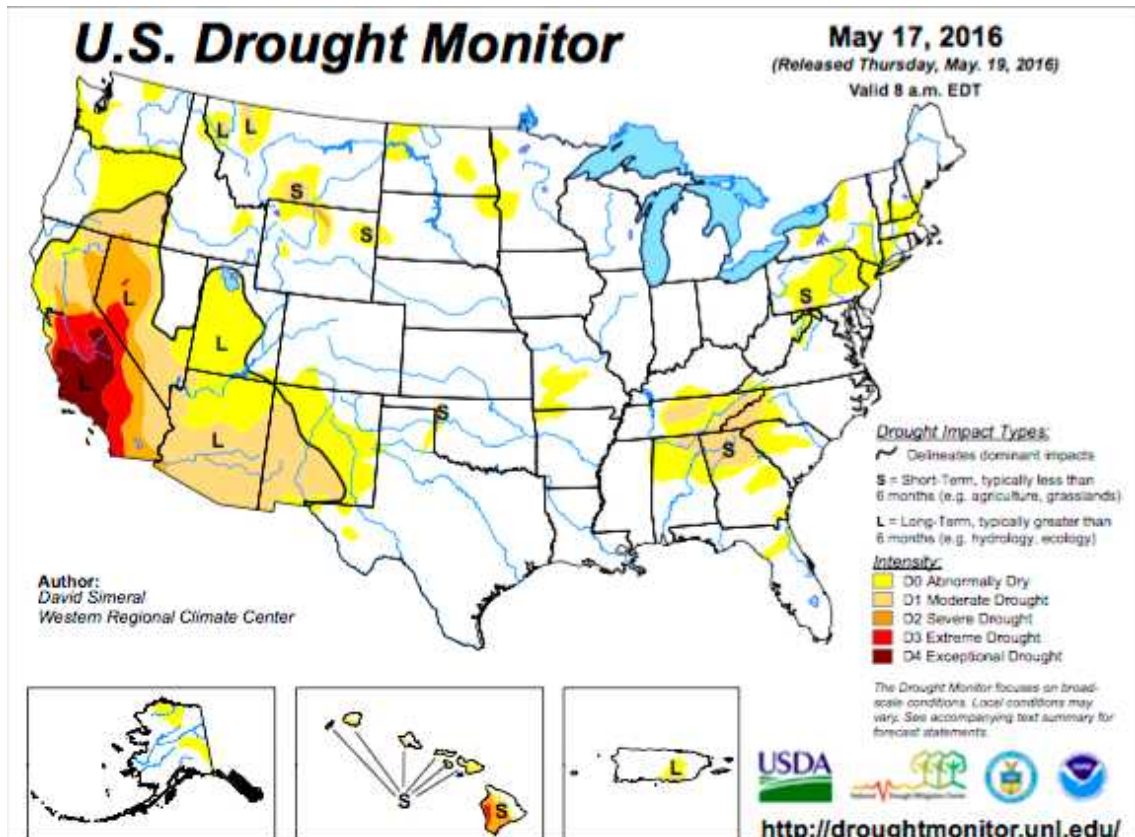


5월 2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21)

□ 미국 기후 현황(5/15~5/21)

중서부 및 뉴 잉글랜드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이 덕분에 파종 등 농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Great Lake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 탓에 농작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중서부의 옥수수과 대두 등의 발아가 지연되기도 했고, 주 초반에는 갑작스러운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 5월 14~15일 이틀간 중서부 및 Great Lake 일대에 중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미네소타에서는 옥수수의 발아율이 53%를 기록했고, 노스다코타의 경우 22%, 사우스다코타와 위스콘신에서는 각각 17%를 기록했다. 5월 16일에는 오하이오 및 북동부 일대에서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렸다. 중부와 남부 평원, 남부 대서양 연안 일대에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소나기가 내렸다. 중부 대평원에서 오하이오, 대서양 연안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정도 낮았다. 걸프 연안 서부 및 대서양 연안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알라바마 북부 등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 농업 현황 요약(5/16~5/22)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들이 이어진 한 주였다. 중부 대평원부터 대서양 연안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6°F 이상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평원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다. 로키산맥 전역 및 걸프 연안과 대서양 연안 남부에 위치한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옥수수 지배지 일대와 북동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 세계 기후 현황(5/15~5/21)

■ 유럽: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농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프랑스 중부와 폴란드 남부, 발칸반도 북부 일대에서는 10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린 가운데 파종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스페인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 덕분에 보리와 밀의 수확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영국에서는 10~4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프랑스 남동부와 이탈리아, 발칸반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지중해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0~9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폴란드 북부와 발틱 연안 지역에서는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기온은 평년에 비해 1~4°C 정도 낮았지만, 스페인과 잉글랜드 북동부에서는 기온이 3°C 정도 높았다.

■ 구소련(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작물들의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비로 인해 농작업은 중단되었다.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벨라루스 동부에서 우크라이나 북부 및 러시아 남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쳤다. 러시아 중부와 남부 등에서는 사료작물이 주로 재배되는데 이번 비로 인한 영향은 적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10~7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겨울밀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여름작물의 파종작업은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연되기도 했다.

■ 동아시아: 북부 평원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날씨도 따뜻했고, 이 덕분에 겨울밀의 생육상황도 좋은 편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서 여름작물의 수분공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주 초반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지만 맑은 날씨가 주 후반 동안 계속 이어졌다. 강우량은 10mm미만이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 덕분에 옥수수, 대두, 벼 등의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부 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토양 수분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 때문에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작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북한과 남한의 북서부 일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렸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여름작물의 수확 및 겨울작물의 파종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동부 일대에서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고, 겨울작물의 발아 등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인 서부 일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밀, 보리, 카놀라 등의 발아가 한층 더 많이 관찰되었다. 서부 일대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높았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 덕분에 겨울작물의 초기 성장이 활발한 편이다 .

■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 농경지역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여름 작물의 수확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Cordoba 중부 및 Santa Fe 북서부, Salta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Buenos Aires 중부와 Parana 강 저지대 등에서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한편, 북동부의 Entre Rio 북부, Santa Fe 북동부, 남서부의 La Pampa, Buenos Aires 서부, Cordoba 남부 등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 한주간 기온은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낮았다. La Pampa, Buenos Aires 남부에서는 낮 최고 기온도 10°C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5월 19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28%, 65%이며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의 46%, 89%에 비해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의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강우량은 50mm 내외로 Parana, Rio Grande do Sul 등에 집중되었고, Sao Paulo, Mato Grosso do Sul 등에서도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5°C 정도 낮았다.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올랐고, 이 덕분에 옥수수 등의 성장이 한층 빨라졌다.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5월 16일 기준 2모작 옥수수의 대부분이 개화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지역의 75%에서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중부와 북동부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5°C 정도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